

[예 시]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

고 발 장

1. 고발인

성 명	○○○
주 소	○○ ○○○ ○○○○○ ○○○○
전 화	○○○-○○○○-○○○○
이메일	○○○○○○@○○○○○○○○.○○○

☞ 고발인의 인적사항은 상세히 기입한다.

2. 피고발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 ○○○○		
직 업	○○○○○○○		
전 화	○○○-○○○○-○○○○		
이메일	○○○○○○@○○○○○○○○.○○○		
기타사항			

☞ 피고발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한다.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경우 '미상'으로 기입한다.

3. 고발죄명

가. 동물보호법 위반

☞ 고발죄명을 기재한다. 재물손괴 등 동물보호법 위반 외 위법하고 유책한 사실이 존재할 경우 추가 기술한다.

4. 범죄사실의 요지

가. 동물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게 하거나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2019. 00. 00. 오전 0시 00분경 0000 인근에서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등의 학대 행위로 두개골 골절 및 각막 손상, 안구 돌출 등의 심각한 상해를 유발하였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하여 학대자의 행위가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임을 기술한다.

☞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간결하게 서술하되 학대 행위자의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5. 사건의 경위

고발인 000은 2019년 0월 0일 오전 0시 00분경 0000 인근에서 피고발인 000가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000 지역 캣맘들이 물심양면 돌보던 길고양이로, 0월 0일 오전 0시 무렵 피고발인 000은 0000 인근에서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발인은 고양이의 엉덩이를 쓰다듬는 척 하던 사이 갑자기 꼬리를 움켜쥐고 고양이를 들어 올렸고 쇠파이프로 잔인한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캣맘으로서 평소 길고양이들을 돌보아오던 고발인 000 본인은 다른 캣맘들과 함께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기 위하여 동네를 돌아다니던 중 무언가 내리치는 둔탁한 소리와 날카로운 동물의 비명 소리에 현장을 발견하게 됐고 피고발인이 한 손에는 고양이의 꼬리를, 다른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캣맘들과 마주친 피고발인은 인근 화단에 고양이를 버리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해당 고양이는 두개골 골절 및 각막 손상, 안구 돌출 등으로 생사를 오가고 있으며 현재 지역 내 00동물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 제4호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규정하는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제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고양이를 진심 어리게 돌봐온 캣맘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시민 및 캣맘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야기했습니다.

쇠파이프로 고양이를 수차례 내려치는 잔인한 방법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가한 피고발인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 사건의 경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술한다.

☞ 학대자의 학대 행위가 해당되는 법 조항(동물보호법 제8조)과 처벌 조항(동물보호법 제46조)을 함께 기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결론

피고발인은 2019. ○. ○. 오전 ○시경 ○○○○ 인근에서 캣맘들이 지켜보는 앞에 고양이를 쇠파이프로 내려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위반으로 동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마땅합니다.

본 고발인은 위 폭행 현장을 목격한 후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 본 고발에 이르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시어 부디 피고발인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수사하여 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 학대 행위자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다시 한 번 간단히 기술한 후,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7. 증거자료

☐ 증 제1호)

☐ 증 제2호)

☞ 폭행 현장, 학대 도구, 피학대 동물의 사진(동물의 상태 파악 가능한 사진) 등을 첨부한다.

☞ 동영상의 경우 USB 또는 CD에 자료를 저장하여 별도 제출한다.

2020. ○○. ○○.

고발인 성 명 (인)

○○경찰서 귀중